

일본 ‘대학입학공통테스트’ 국어 서술형 문항 연구

최미숙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제4회 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2018.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일본 교육개혁과 '대학입학공동테스트'
- III. '대학입학공동테스트' 국어 서술형 문항 분석
- IV. '대학입학공동테스트' 서술형 문항의 시사점
- V. 결론

I. 서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방법을 변화시키고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 부응하고자 2018학년도부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05곳에서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주관식 시험도 서술형 위주로 한다고 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중학교 22곳에서 객관식 시험을 시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김광수·김미향, 2018).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선택형 중심 평가 방식으로는 다가올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평가 방법 차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변화, 교육 방식의 변화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방법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수업에서 이루

어지는 평가 단위를 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을 향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식 시험인 수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입 전형에서도 학생의 창의적 관점을 발견하는 서술형, 논술형 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권태현, 2017: 163)”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대입 시험에 서술형¹⁾ 문항을 부분적으로 출제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랜 개발 과정을 거쳐 2017년 5월에 ‘국어’와 ‘수학’ 과목의 서술형 모델 문항을 발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대변혁을 예고하였다. 서술형 모델 문항은 차후 치러질 일본 대학 입학시험의 특성뿐만 아니라 일본 교육개혁의 방향을 잘 드러내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최근 일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어 서술형 모델 문항의 특성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문항은 일본의 대학입시센터가 2017년 5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2개의 국어 서술형 모델 문제와 2017년 11월에 새로운 대입 시험 도입을 위한 시행 조사에서 적용한 1개의 국어 서술형 문제이다. 2017년 5월에 공개한 서술형 모델 문제의 경우 ‘문제 1’은 4개, ‘문제 2’는 3개의 하위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1월에 적용한 1개의 국어 서술형 문제는 3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서술형 문항은 모두 10개이다.²⁾ 이 연구에서는 서술형 문항의 출제와 채점 등을 위한 행정적 절차나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 공개된 총 10개 서술형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또한 서술형 문항의 구체적

1) 일본에서는 ‘기술식(記述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술형’ 문항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 특성상 우리나라의 서술형 문항에 가깝기 때문이다.

2) 2017년 11월에 실시한 공동테스트 시행 조사에서 제시한 서술형 문제는 이후 ‘예비테스트 문제’로 칭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인 분석을 위해 문부과학성과 대학입시센터에서 발표한 공개 문서를 참조하여 논의할 것이다.

문항 분석은 평가 도구의 측면과 언어능력 평가의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화하고자 한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 도구를 구조화했는지 그리고 언어 능력의 어떤 측면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의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선택형 문항과의 차이보다는 대입시험 문항으로서의 서술형 문항이 보여주는 새로운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일본 서술형 대입 시험 문항의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대단위 대입 문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 개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선택형 문항만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대입 시험은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택형 문항만으로 이루어진 대입 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두 나라의 대입 시험 모두 약 60만 여명의 수험생이 지원하는 유사한 규모의 대단위 선발 시험이라는 점³⁾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대입 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고등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들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수능 시험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2017년 11월 16일에 실시한 한국의 수능 시험 지원자 수는 593,527명이며(교육부, 2017), 2018년 1월 13일에 실시한 일본의 센터시험 지원자 수는 582,671명이다(大学入試センター, 2018).

II. 일본 교육개혁과 ‘대학입학공통테스트’

최근, 일본에서는 ‘전후 혹은 메이지 이후 최대의 교육개혁(安西祐一郎, 2017a)’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개혁이 진행 중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수동적 교육으로부터 능동적 학습, 주체적이고 대화적인 깊이 있는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安西祐一郎, 2017b)이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 대학 입시, 대학 교육을 동시 병행으로 개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등학교 기초학력 진단 평가(The Basic Learning Diagnostics for High-School Students)」를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인 ‘대학입시센터시험(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이하 “센터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대입 시험인 ‘대학입학공통테스트(The Common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이하 “공통테스트”)’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도부터 2024년도에 걸쳐 초·중·고에 도입되는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고시,⁴⁾ 모든 대학에 부과되는 통합 3정책(입학, 커리큘럼, 학위 수여) 공표 등 기타 많은 교육 정책이 입시의 전환과 연동되어 시스템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개혁’ 또는 ‘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시스템 개혁’이라고 부른다(安西祐一郎, 2017a; 安西祐一郎, 2017b).

문부과학성은 세계화의 진전, 인공 지능 기술을 비롯한 기술 혁신 등에 따라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시대에 ‘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개혁’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력의 3요소, 즉 ① 지식·기능, ② 사고력·판단력·표현력, ③ 주체성을

4) 문부과학성은 2017년 3월 31일 초·중학교를 위한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 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는 학습 태도'를 육성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 그리고 양자를 연결하는 '대학 입학자 선발'을 동시에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7b).

이 연구에서는 일본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매개로 '대학 입학자 선발'을 설정하면서 교육과정의 개선과 대학 입시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한 교육개혁은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으면 좀처럼 교육 현장은 바꿀 수 없다(佰井美德, 2017)'라는 판단, 즉 아무리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의미 있게 개선하더라도 그것이 평가 방법과 간밀하게 연관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선택형 문항만으로 이루어진 대입 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에서 공통테스트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암기식 지식에 기반한 대입 시험으로부터 지식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험 제도로 전환(安西祐一郎, 2017a)"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대학 입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문항은 일본 교육개혁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센터시험은 대학 입학 지원자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초적인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목별 대입시험으로서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현행 센터시험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험인 공통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통테스트의 특성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첫째, 지원자의 기초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평가한다는 점. 둘째, 국어 시험과 수학 시험에 기존의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항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점(安西祐一郎, 2017a)'⁵⁾이다. 즉 어떤

5) 이어지는 공통테스트의 특성으로 "셋째, 대학은 4개 능력(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영어 평가 시험과 2개 능력(listening, reading) 영어 평가 시험을 둘 다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시에 반영한다.(2024년 이후부터는 4개 능력 영어 평가 시험만 시행) 넷째,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공통테스트의 과학, 역사/지리, 윤리 과목에

평가도구로 무엇을 평가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입학시험에 ‘왜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문부 과학성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서술형(記述式)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선택 사항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을 정리하거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초하여 논술하는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통테스트에 서술형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주체적이고 대화적인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개선을 촉구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文部科学省, 2017b). 이런 점에서 새로운 서술형 문항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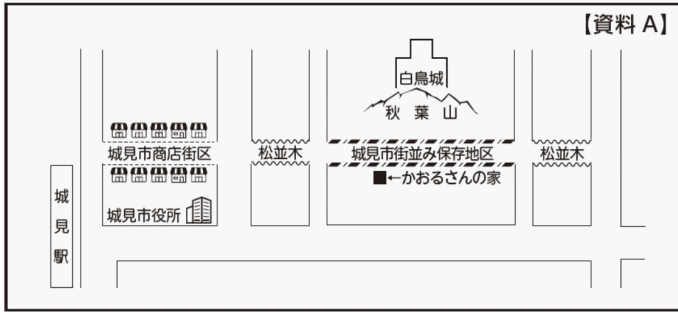
새로 도입되는 공통테스트는 2017년 5월 서술형 모델 문항을 2문제 공개함으로써 그 윤곽을 드러냈으며⁶⁾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 ‘모델문제 1’⁷⁾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술형 문항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섯째, 시험 성적은 대학의 다면적 입학시험에서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한다(安西祐一郎, 2017a).”를 들고 있다.

- 6) 일본은 공통테스트의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갔다. 2017년 7월에 공통테스트에 대한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7년 11월에 약 5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의 서술형 시험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예비 테스트를 실시했다. 2018년 12월에 약 1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의 서술형 시험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예비 테스트를 실시하며, 2019년 봄에 공통테스트 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최종 예비 테스트를 거쳐 2020년(2021년 1월)에 공통테스트를 시행(국어와 수학 서술형 시험, 2개 능력 및 4개 능력 영역 평가 시험 포함)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새로 고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개정된 공통테스트 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반영한 새로운 공통테스트는 2024년에 실시될 예정이다(安西祐一郎, 2017a).
- 7) 분량 상 제제 내용 중 일부는 생략하였으며 편집 방식도 약간 수정하였다. 한편, ‘모델문제 1’은 신향식(2017)에도 소개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 한 해 신향식(2017)을 참조하여 재번역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문제 1】

카오루 씨 집은【자료A】의 ‘시로미시(城見市) 거리 보존 지구’에 접해 있고, 전통적인 외관을 보존한 건물이다. 시로미시가 작성한 경관 보호에 관한【자료B】‘시로미시 “거리 보존 지구”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카오루 씨 아버지와 누나의 대화를 읽은 후 물음(문항 1~4)에 답하십시오.



【자료B】

시로미시 ‘거리 보존 지구’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요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방침

(생략)

경관 보호의 목표

(생략)

경관 보호의 방침

- 소나무 가로수 및 ‘거리 보존 지구’의 식재(植栽)를 보전하고, 거리와 아키바산 경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 건축물의 벽면, 광고물 및 간판의 색채에 대해서는 원색 등의 눈에 띄는 색을 피하여 전통적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 개인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 외부의 색조를 차분한 것으로 하고, 벽면의 위치나 처마 높이를 정돈합니다.
- 일반 및 관광객용 주차장, 거리의 쓰레기통, 쓰레기 수거 시 쓰레기 두는 곳은 눈에 띄지 않도록 고안합니다.

- ‘거리 보존 지구’는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여 여유 있는 보행 공간을 확보합니다.
- 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경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검토합니다.

누 나: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고생하셨어요. 설명회는 어땠나요?

아버지: 어어, 이게, 자료야. 【자료B】를 딸에게 건넸다) 최근 우리 집 주변도 그렇지만, 빈집이 많아졌어. 얼마 전에도 저쪽 빈집 뒷문 열쇠가 부숴진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치안이 불안해. 저쪽 빈집을 헐다고 해도, 그 땅에 “거리 보존 지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지어질지도 몰라. 우리 지방 기업이 거리 조성 제안을 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시로서는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경관을 지켜서 이 일대를 관광 자원으로 하고 싶다는 계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석이조(一石二鳥)를 노린다는 거지.

누 나: 정말이군요. 그럼 우리 집 근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 앞 도로, “여유 있는 보행 공간 확보”라는 주제였으니까, 전선주를 이동할 것인가 전선을 매설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텐데, 좁은 그대로라는 거에는 변화가 없을 거야.

누 나: 우리 집 외벽을 다시 칠할 때는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버지: 아마 그렇게는 안하지 않을까? 시 예산은 공공의 환경 정비에 쓸 거야.

(이하 생략)

문항 1 대화문 중 밑줄 친 ‘일석이조(一石二鳥)’란, 이 경우 거리 보호 지구가 무엇에 의해 어떻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지 ‘일석(一石)’과 ‘이조(二鳥)’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40자 이내로 답하시오.(단, 구두점 포함)

문항 2 어떤 회사가 ‘거리 보존 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시로미시에 제출했다. 다음의 글은 그 【제안서 요지】이다. 이에 대해 시로미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 달라고 해당 회사에 요구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35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단, 구두점 포함)

【제안서 요지】

여러 빈집이 연속해서 늘어서 있는 장소를 재이용한 상업시설을 만들고자 한다. 오래되어 정취가 있는 민가를 최대한 활용한 카페, 양복점, 서점, 잡화점, 미용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작하여 ‘한번은 가보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공헌하고자 한다.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친절하게, 눈에 쉽게 띄는 색의 간판을 많이 배치하여 가고 싶은 가게를 곧바로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또, 주민에게도 매우 편리한 가게의 유치를 추진하겠다.

문항 3 대화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아버지와 누나 간 논의의 대립점을 ‘~의 옳고 그름(是非)’이라는 형태로 문장을 끝맺도록 2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단, 구두점 포함)

문항 4 아버지와 누나의 대화를 듣고, 다시 가이드라인을 읽은 카오루 씨는 누나에게 찬성하는 입장에서 누나의 의견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카오루 씨는 어떤 의견을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단, 구두점 포함)

조건 1 전체를 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총 80자 이상 120자 이내로 서술할 것. 또한 대화체로 하지 않아도 좋음.

조건 2 첫 문장에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과 누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간결하게 제시할 것.

조건 3 두 번째 문장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

조건 4 조건 2와 3에 대하여 각각의 근거가 되는 기술을【자료 B】‘시로미시 “거리 보존 지구”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요’에서 인용하고, 그 부분을 “ ”로 표시할 것. 또한, 글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줄여 써도 좋음.

‘모델문제 1’에서 볼 수 있듯 공통테스트의 서술형 문항은 여러 개의 제재를 바탕으로 3~4개의 하위 문항을 제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모델문제 1’은 ‘시로미시 “거리 보존 지구”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요’, 시로미시 자료에 대한 ‘카오루 씨 아버지와 누나의 대화’, ‘거리 보존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시로미시에 제출한 어떤 회사의 제안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

고 있다.

이 외에 ‘모델문제 2’는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서 작성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술하도록 한 문항이다. 주차장 관리 회사인 겐파크와 사용자 사유리 씨 간의 ‘주차장 사용 계약서’가 중심 텍스트로 제시되고 있다. 2017년 11월 공통테스트 시행조사에서 활용한 ‘예비테스트 문제’는 고등학생에게 익숙한 ‘학생회 동아리 활동 규약’, 동아리활동위원회 회의 장면,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통계 자료, 학교 신문 기사 등을 텍스트로 하고 있다. 텍스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수험생의 사고와 판단 내용을 서술하도록 한 문항이다. ‘아오하라(靑原)고등학교 학생회 동아리 규약’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III. ‘대학입학공통테스트’ 국어 서술형 문항 분석

1. 평가 도구 측면

1) 조건 제시형 서술형 문항

공통테스트의 서술형 문항은 대부분 ‘조건 제시형 서술형 문항’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항에 제시된 조건은 답안을 서술할 때 지켜야 할 ‘형식 측면’ 그리고 서술해야 할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 측면에서 살펴 볼 경우, 다음과 같이 ‘문장의 형태’, ‘문장의 개수’, ‘답안의 글자 수’, ‘근거의 개수’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답안의 마지막 부분이 ‘~에 대해 질문한다’로 되도록 하여, 40자 이내로 서술 하시오. (모델문제 1 - 문항 1)
- 조문 번호를 분명히 밝히면서 ‘겐파크 주장의 근거와 그 잘못된 점’과 ‘사유 리 씨 반론의 근거’ 2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모델문제 2 - 문항 2)
- 두 문장 구성으로, 80자 이상 120자 이내로 쓸 것(구두점 포함). 또한 대화체로 쓰지 않아도 좋음. (예비테스트 - 문항 3)

분량은 20자 이내~50자 정도로 비교적 짧게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문제별로 80자 이상 120자 이내로 서술하는 문항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글자, 문장, 근거의 개수 등에 대한 요구는 서술해야 할 분량을 바탕으로 사고 내용의 폭과 깊이를 조정하고 구조화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표현 주제, 서술해야 할 문장의 형태 혹은 내용의 방향, 각 문장별로 답아야 할 내용 항목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의 시비(옳고 그름)’에 연결되도록 작성하라. (모델문제 1 - 문항 3)
- ~의 주장을 반론하는 내용으로 할 것 (모델문제 2 - 문항 2)
- 모리 씨가 신문에 실어야만 하는 조건과 절차는 어떤 것인가 (예비테스트 - 문항 1)

자유 서술식 문항이 아니라 조건 제시형 서술형 문항을 택한 이유는 대규모 선발 시험이라는 공통테스트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나아가 사고와 판단 그리고 서술의 방향을 세밀하게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고민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⁸⁾ 대규모 선발형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을 활용할 때 많은

8) 문부과학성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수험생이 사고·판단·표현을 요구받는 구체적인 장면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이다. 과제 해결의 방향과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과제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채점하는 방식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하게 제시한 조건이 답안의 방향과 내용을 미리 정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자 수 뿐만 아니라 문장이나 근거의 개수, 나아가 서술해야 할 내용까지 제시하는 ‘조건’이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지나치게 제한하는 역할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일상생활 중심의 다양한 실용적 제재 선정

공통테스트의 서술형 문항은 주로 행정기관의 홍보 자료, 주차장 사용 계약서, 제안서, 대화·토론 장면, 규약, 신문기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실용적인 텍스트들을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선택형 문항까지 포함하여 ‘예비테스트’ 국어 문제 전체를 살펴보면 평론, 문학, 고문, 한문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델 문제와 예비테스트 문제의 서술형 문항만을 대상으로 보면, 모두 실용적인 텍스트를 문항 제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문제별로 제시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모델문제 1〉

【자료A】시로미시(城見市) 거리 지도

【자료B】시로미시 ‘거리 보존 지구’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요

을 조건으로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답안 패턴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짧은 기간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한 채점이 가능하도록 한 것(文部科学省, 2017a)’이라고 말한 바 있다.

- 9) 일본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정한 글자 수에 맞추어 답을 하라고 함으로써 ‘주입식 암기 지식이 아닌 사고력·표현력을 보고자 했던 주관식 평가의 중요한 목적을 잃는 것은 아닌가(毎日新聞, 2016)’ 하는 우려를 예로 들 수 있다.

【대화】카오루 씨 아버지와 누나의 토론

〈모델문제 2〉

【주차장 사용 계약서1】주차장의 관리회사(원파크(原パーク)와 사유리 씨가 체결한 계약서

【주차장 사용 계약서2】새로운 주차장 관리회사(신마치P)와 사유리 씨와의 계약서

【대화】사유리 씨와 겐파크 담당자의 전화 대화

〈예비테스트 문제〉

【동아리 규약】아오하라(青原) 고등학교 학생회 동아리 규약

【대화】학생회 동아리활동위원회의 집행부 회의

【資料①】동아리 활동에 관한 주요 요망 사항 통계

【資料②】 시내 5개 학교 동아리 활동 종료 시간 조사

【資料③】아오하라 고등학교 신문 발췌

대학입시센터에서는, 문항의 제재가 실용적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차장 사용 계약서를 중심 텍스트로 하고 있는 ‘모델문제 2’의 경우, 이 문제는 법률적인 지식과 법률 문서 작성 기술 등에 관한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大学入試センター, 2017a)¹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이전의 센터시험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텍스트들로서 공통테스트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센터시험에서는 주로 인문·사회 분야의 글을 활용하여 문제를 출제해 왔다. 그런데 공통테스트에서 실용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술형 문항을 구조화하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10) 한편, 대학입시센터에서는 서술형 모델 문제가 실용적인 텍스트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어떤 제재가 적당한가 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갈 것(大学入試センター, 2017c)’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이나 기능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다양한 실용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와 판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한 문제에 여러 다양한 실용적 텍스트를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각각 텍스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나 내용을 관련지어 사고하도록 문항을 구조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인들의 언어생활에서 단일 텍스트만을 접하는 경우는 드물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결합하여 읽고 정보를 비교·분석·통합하면서 판단하거나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텍스트와 관련 있는 다른 텍스트를 스스로 찾아 비교·검토하면서 읽고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련 텍스트를 제시한 후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서술형 모델 문항이 모두 실용적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다. 실용적 텍스트는 담고 있는 의미 내용이 명확하여 텍스트의 의미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실용적 텍스트 읽기는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이 답하는 과정에서 큰 이견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요구하는 과제 수행 과정이 비교적 단순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채점기준 제시

대규모 선발 시험의 서술형 문항에서 채점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채점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채점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채점기준은 분명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통테스트에서는 상세한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채점기준표에 '정답 예'와 '정답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채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문항과 채점기준의 예(大学入試センター, 2017a)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델문제 1-문항 4]

문항 4 아버지와 누나의 대화를 듣고, 다시 가이드라인을 읽은 카오루 씨는 누나에게 찬성하는 입장에서 누나의 의견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카오루 씨는 어떤 의견을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단, 구두점 포함)

조건 1 전체를 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총 80자 이상 120자 이내로 서술할 것. 또한 대화체로 하지 않아도 좋음.

조건 2 첫 문장에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과 누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간결하게 제시할 것.

조건 3 두 번째 문장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

조건 4 조건 2와 3에 대하여 각각의 근거가 되는 기술을【자료 B】시로미시 “거리 보존지구”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요’에서 인용하고, 그 부분을 “ ”로 표시할 것. 또한, 글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줄여 써도 좋음.

〈나〉 ‘정답 예’와 ‘정답 조건’

(정답 예)

누나의 의견은 “모든 사람”이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관을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정책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편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19자)

(정답 조건)

- ① 2문장으로 쓴 것
- ② 80자 이상 120자 이내로 작성한 것
- ③ 첫째 문장에서 ‘의식의 향상’ 또는 ‘경관을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라는 부분을 “ ”을 사용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
- ④ 둘째 문장에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기록을 검토’라는 부분을 “ ”을 사용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
- ⑤ 둘째 문장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1	항목 ① ~ ⑤의 모든 것을 충족한 것	◎
2	항목 ① 및 ③ ~ ⑤를 충족한 것	
3	항목 ② 및 ③ ~ ⑤를 충족한 것	
4	항목 ①, ②, ③, ④를 충족한 것	
5	항목 ①, ②, ④, ⑤를 충족한 것	
6	항목 ①, ②, ③, ⑤를 충족한 것	
9	위 이외의 해답	
0	무 해답	

인용문에서 <가>는 문항이고 <나>는 채점기준이다. <가>를 보면, 답안 작성의 조건으로 2개의 문장, 총 80자 이상 120자 이내의 글자 수, 각 문장별로 답아야 할 내용, 근거로 삼아야 할 자료와 내용 표시 방법 등 서술의 조건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나>의 ‘정답 예’와 ‘정답 조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채점기준에 의하면 정답의 조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5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날 경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물론 그 외 정답 조건의 일부분만 충족한 5개 답안(2~6 답안)에 대한 차등화된 점수 부여는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했듯, 글자 수를 ‘○○자 이내’로만 제한하고, 정확한 글자 수 준수 여부를 채점기준에 엄격하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답안란에 해당 글자 수까지만 원고지 형태의 칸이 제공되고 있어 정해진 분량을 넘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25자 이내로 쓰라고 했을 경우, 답안란에 25개 글자 칸만 제시되는 것이다. 글자 수 조건이 서술해야 할 분량의 정도, 사고의 폭과 깊이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면, 글자 수 자체에 수험생들의 사고가 갇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술형 문항이 애초에 지향했던 창의력, 사고력 등을 위해서는 답안의 다양성과 위계성을 고려한 채점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고력·창의력을 위해서는 답안의 다양성이 필요하며, 답안으로서 변

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계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통테스트 서술형 모델 문항의 채점기준은 답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 대체로 미리 정해진 답안만을 인정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물론 답안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우(예: ‘예비테스트 문제-문항 2’의 채점기준)도 있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며, 동의어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경우에 한하고 있다.

2. 언어 능력 평가 측면

문부과학성은 서술형 문항을 도입함으로써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의 평가를 언어 능력 평가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질적인 문제 상황의 설정과 해결 과제의 제시

공통테스트의 서술형 문항은 대부분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특정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모델문제 1’에서는 오래된 동네의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는 카오루 씨 가족이 한편으로는 쇠퇴해져 가는 동네의 개선을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관 보호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늘어나는 빈집 문제는 일본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한 문제 상황을 설정한 후 해결 방법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모델문제 2’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차장 사용 계약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갑’과 ‘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예비테스트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동아리활동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 상황을 설정한 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과정에 수험생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분리된 지식 혹은 추상적이거나 논리만으로 이루어

지는 사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바탕으로 한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대화·토론·협의 등을 통한 의견 교환의 강조

서술형 문항이 글로 쓰는 문항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화·토론·협의 등을 중요한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은 언어 능력에 대한 공통테스트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모델문제 1’에서는 카오루 씨 아버지와 누나의 긴 토론이, ‘모델문제 2’에서는 사유리 씨와 주차장 관리회사 담당자와의 짧은 전화 대화가, ‘예비테스트 문제’에서는 아오하라 고등학교 동아리활동위원회 집행부의 협의 내용이 ‘대화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대화·토론·협의를 제시함으로써 공통테스트의 서술형 문항은 새로운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서술형 문항은 이전처럼 텍스트를 앞에 두고 그 내용을 혼자서 고독하게 읽어가는 주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 상황에서 설정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주체와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하거나 협의하는 주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수험생에게 그 문제 상황에 뛰어들어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수험생은 카오루 씨 아버지와 누나의 토론을 지켜보다가 누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말을 해야 하며, 주차장 사용 계약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유리 씨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로서 조언해야 한다. 또한 회의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고려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자신 혹은 공동체가 맞닥뜨린 과제의 해결 과정에 대화·토론·협의를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는 언어능력을 중시하겠다는 자국어 교육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는 주로 텍스트 내용 파악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센터시험 문항 구조화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읽기 교육 중심의 기존 일본 자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 능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가 분명하게 담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3) 특정 관점을 견지한 여러 언어 주체의 설정

서술형 문항에는 특정 관점을 견지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모델문제 1’에서는 카오루 씨, 카오루 씨의 아버지와 누나, ‘모델문제 2’에서는 사유리 씨, 사유리 씨 친구, 겐파크(原パーク) 담당자, ‘예비테스트 문제’에는 아오하라 고등학교 동아리활동위원회 집행부 회의에 참여하는 5명의 학생이 등장한다. 그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특정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언어 주체들이다. 그들은 다른 인물과 협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며 혹은 다른 이에게 조언을 하거나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대립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기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등장인물들은 대화·토론·협의 등을 통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수험생은 이러한 등장인물들 중 한 명 혹은 특정 인물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¹¹⁾ 문항이 지정한 인물이 되어 청자에게 혹은 특정 대상에게 해야 할 말이나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모델문제 1’에서는 제안서를 제시한 어떤 회사에 대해 시로미시의 입장에서 수정 내용을 요구해야 하며, 카오루 씨의 입장에서 누나의 의견에 찬성하는 말하기 내용을 써야 한다. ‘모델문제 2’에서는 사유리 씨의 입장에서 겐파크 측에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며, 또한 사유리 씨의 친구가 되어 사유리 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언을 해야 한다. ‘예비테스트 문제’에서는 모리 씨가 되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동아리 신설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야 하며, 또 동아리 활동 종료 시간 연장에 찬성하면서도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설정은 문제 상황의 현실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주체의 사고와 판단의 구체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자국어 교육에서 학생

11) 총 10문항 중 지정된 인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모델문제 1 - 문항 1’, ‘모델문제 1 - 문항 3’, ‘예비테스트 문제 - 문항 2’의 총 3문항이다.

개개인이 의미 있는 언어 주체가 되어 사고하고 판단하며, 그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사고와 판단을 통한 결정의 언어 요구

사고의 언어, 판단의 언어, 표현의 언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삶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쓴다. 공통테스트의 서술형 문항은 그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서술형 문항에서는 특정 언어 주체를 설정하고, 그 주체의 입장에서 사고·판단·결정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사고의 언어, 판단의 언어, 결정의 언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와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고의 방향과 내용, 판단과 결정의 언어도 달라진다. 서술형 문항은 그러한 언어 표현이 실질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인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언어 능력이란 지식을 이해하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상적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이러한 문항 구조화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고와 판단 그리고 결정의 언어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서술형 문항에 제시된 실용적 텍스트들은 내용이 선명하며,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제재들이다. 이때 요구되는 언어활동 역시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아서, 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혹은 정확하게 정리하여 적용하는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고력·판단력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거나 혹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사고와 판단을 통한 사고의 확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단순 사고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서술형 문항이 지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IV. ‘대학입학공통테스트’ 서술형 문항의 시사점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인간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며,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평가 방식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통테스트 서술형 문항의 특성을 통해 우리는 서술형 문항 개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종류가 다른 다양한 실생활 텍스트를 결합하여 문항을 구조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텍스트를 바탕으로 사고와 판단의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수능 시험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가 등장한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글, 문학작품 외에도 학생의 발표문, 대화, 글쓰기를 위한 자료, 이메일, 사전 자료, 그래프 등 다양한 텍스트가 등장하고 있다. 2개의 텍스트를 결합하면서 문항을 구조화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의 발표문과 그 발표문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의 토론과 글쓰기/작문계획/글쓰기 자료, 초고와 추가 수집 자료 등을 각각 결합한 것이 그 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좀 더 실생활과 관련 있는 텍스트, 특정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언어 능력 평가에 유용할 것이다. 다양한 텍스트를 비교하고 통합하고 구조화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사고와 판단력은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관련지어 결합하는 데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역 통합형 문항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둘째, 고차원적인 사고와 판단 그리고 표현 능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생활 텍스트와 더불어 인문, 사회,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함께 결합하여 제재로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통테스트 서술형 문항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았던 것

은 제재가 실생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데 원인이 있다는 점을 앞에서 서술하였다. ‘모델문제 2-문항 2’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주차장 사용 계약서의 제 2조와 제 7조 내용의 단순 확인으로도 가능하다. 겐파크와의 계약은 2017년 3월 31일에 끝나고 새로 전근 발령을 받은 근무지는 2017년 4월 1일부터라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텍스트를 이해할 때, 날짜 확인도 중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적인 정보 확인 능력일 뿐, 그것이 어떤 사고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순 내용 확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비테스트 문제’도 마찬가지다. 규약에 제시된 ‘새로운 동아리 신청시 조건과 절차’만 확인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여기에 특별한 사고력과 판단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굳이 서술형으로 출제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깊은 사고의 요구보다는 명확한 사실과 의견의 전달을 주목적으로 삼는 실용적 텍스트만을 제재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것이다. 사고를 새롭게 전환하고 확산시키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설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결합하여 문항을 구조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화·토론·협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언어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수능 시험 개편 과정에서, 기존 ‘언어’ 영역에 오랫동안 출제되었던 ‘듣기’ 문항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택형 시험이라는 한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듣기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기존의 ‘듣기’ 문항은 부분적이거나 화법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공통테스트 서술형 문항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중시하는 것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정 관점을 견지한 여러 언어 주체와 함께 대화, 토론, 협의 등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자신의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일련의 언어활동을 문항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

양한 언어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국어교육의 지향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언어활동을 통해 언어 주체의 사고와 판단의 언어 그리고 주체적인 결정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술형 문항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채점에 소요되는 행정·시간·인력·예산,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서술형 문항 도입에 모두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술형 문항의 도입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주체적인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수능 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선택형 문항에 서술형 문항을 부분적으로 출제하면서 점점 그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이 그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술형 문항 도입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서술형 평가를 활용해온 경험이 있다. 또 그동안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서술형 문항을 출제했으며,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층위의 서술형 평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입 시험 서술형 평가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 서술형 문항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궁극적으로 학교 현장도 변화시키려는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일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대학입학공동테스

트' 국어 서술형 모델 문항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평가도구의 측면에서 볼 때, 공통테스트 서술형 문항은 조건 제시형 문항, 일상생활 중심의 다양한 실용적 제재 선정, 구체적인 채점기준의 설정 등 기존의 선택형 문항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언어 능력의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문제 상황의 설정과 해결 과제의 제시, 대화·토론·협의를 통한 의견 교환 강조, 특정 관점을 견지한 여러 언어 주체의 설정, 사고와 판단을 통한 결정의 언어 요구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특정 관점을 견지한 여러 언어 주체를 설정하고 그들이 설정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문항을 구조화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종류가 다른 다양한 일상생활 텍스트를 결합하여 문항을 구조화하는 방식, 고차원적인 사고와 판단 그리고 표현 능력의 신장을 위해 실생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결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식, 구체적 인물의 관점에서 대화·토론·협의를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언어활동을 강조하는 방식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공통테스트의 서술형 모델 문항이 아직 한계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일본 서술형 문항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술형 문항은 우리 국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어 교육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서술형 문항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평가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8. 4. 30. 투고되었으며, 2018. 5.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6. 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7. 09. 1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교육부 보도 자료」,
검색일자 2017. 11. 23., 사이트 주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0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m=0503&opType=N>.
- 권태현(2017. 12. 9.), 「해외 대입 작문 평가의 동향 및 시사점」, 제43회 한국작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관.
- 김광수·김미향(2018. 1. 4.), 「부산 초등학생은 새해부터 객관식 시험 안 봅니다」, 한겨레신문,
검색일자 2018. 1. 22., 사이트 주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6320.html>.
- 신향식(2017. 11. 20.), 「한국과 너무 다른 일본 수능문제, 한 번 풀어봤더니」, 오마이뉴스, 검색일자 2017.11.21., 사이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7818.
- 大学入試センター(2017a. 5. 16.), 「大学入学共通テスト(仮称)記述式問題のモデル問題」, 검색일자 2017. 7. 8., 사이트 주소 http://www.dnc.ac.jp/corporation/daigakunyugakukibousyagakuryokuhyoka_test/model.html.
- 大学入試センター(2017b. 7. 13.), 「第1回、第2回モニター調査実施結果について」, 검색일자 2017. 10. 10., 사이트 주소 http://www.dnc.ac.jp/corporation/daigakunyugakukibousyagakuryokuhyoka_test/model.html.
- 大学入試センター(2017c), 「新テスト(‘大学入学共通テスト’)の実施等に向けた当センターの取組みについて」, 검색일자 2017. 11. 20., 사이트 주소 <http://www.dnc.ac.jp/>.
- 大学入試センター(2018. 1. 12.), 「平成30年度大学入試センター試験の志願者数(確定)について【変更】」, 검색일자 2018. 1. 28., 사이트 주소 http://www.dnc.ac.jp/sp/albums/abm.php?fabm00011320.pdf&n%E5%BF%97%E9%A1%98%E8%80%85%E7%A2%BA%E5%AE%9A_h30_press_0112.pdf.
- 毎日新聞(2016. 11. 9.), 「記述式入試 問題例示し議論深めよ」, 毎日新聞 社説, 검색일자 2017.11.30., 사이트 주소 <https://mainichi.jp/articles/20161109/ddm/005/070/033000c>.
- 文部科学省(2017a. 7.), 「大学入学共通テスト実施方針策定に当たっての考え方」, 검색일자 2018. 1. 8., 사이트 주소 http://www.mext.go.jp/a_menu/koutou/koudai/detail/1397731.htm.
- 文部科学省(2017b. 10.), 「‘大学入学共通テスト’について」, 검색일자 2018. 1. 8., 사이트 주소 http://www.mext.go.jp/a_menu/koutou/koudai/detail/1397733.htm.
- 佰井美德(2017), 「‘学ぶこと’と大学入試改革」, 『新テストのすべてがわかる本』, 東京: 教育開発研究所.

- 安西祐郎(2017a. 11. 2.), 일본의 교육 및 대입제도 대개혁: 현황과 미래전망』, 국회미래일자리
와 교육포럼자료집,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安西祐一郎(2017b), 『戦後最大の教育改革が進行中』, 『サービソロジー』 4巻 2号, サービス学会,
검색일자 2017. 11. 30., 사이트 주소 [https://www.jstage.jst.go.jp/article/serviceol-
ogy/4/2/4_1/_article/-char/ja/](https://www.jstage.jst.go.jp/article/serviceology/4/2/4_1/_article/-char/ja/).

일본 ‘대학입학공통테스트’ 국어 서술형 문항 연구

최미숙

이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새로 도입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 국어 서술형 모델 문항 특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으로부터 서술형 문항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건 제시형 서술형 문항, 일상생활 중심의 다양한 실용적 제재 선정, 구체적인 채점기준의 작성이라는 평가 도구적 측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 상황의 설정과 해결 과정의 제시, 대화·토론·협의 등을 통한 의견 교환을 강조, 특정 관점을 견지한 여러 언어 주체의 설정, 사고와 판단을 통한 결정의 언어 요구 등 언어능력 평가 측면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생활 제제만을 선정한 점, 단순한 조건 제시의 방식 등 몇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테스트의 국어 서술형 문항은 우리의 대입 서술형 문항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대학 입학시험, 대학입학공통테스트, 서술형 문항,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ABSTRACT

Analysis of Writing Tests of “The Common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in Japan

Choi Meesook

This study analyzed the Japanese writing test model items included in the “Common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in Japan and studied the implications of the test characteristics on the evaluation methods in Korea.

It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the writing test items in education reform in Japan, the composition of the writing test it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Through this analysis, we ascer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riting test items and the implications of what language abilities are emphasized through writing test items. Through this study and subsequent efforts, we hope to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educational field in Korea.

KEYWORDS University Admission Tests, The Common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Writing Tests